

## 낙농사수를 위해 한미 FTA 무효화투쟁 나서기로

-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제1회 임원회의 개최결과 -

한미 FTA 타결로 농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 청년낙농인들이 한미 FTA 무효화투쟁에 앞장서기로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5월 3일 축산회관에서 제1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FTA 타결 및 낙농현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활동방안 수립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분유를 현행관세로 유지했다고 하지만 무관세로 TRQ물량을 과다하게 내줌으로써 결국 UR협상에서 분유는 고관세를 유지하고 혼합분유를 저관세로 허용한 실패를 답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하였다. 또한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에서 TRQ관리방식에 대해 국영무역 포기 및 수입이익부과금(MARK UP) 예외,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의 국내 보호장치마저 위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집회, 기자회견 등 협회와 타농민단체의 한미 FTA 무효화 투쟁 및 도(연합)지회 대책마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한미 FTA 타결 및 낙발대책에 대한 농가 입장 전달을 위해 농림부 축산국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낙농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낙농지킴이'로써 청년낙농인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조직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도(연합)지회에 청년활동가(청년지도자) 선임을 요청하여 6월까지 전제회의를 확대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정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등 청년분과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협회 하부조직으로서의 조직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 낙농주권 밀실이는 한미 FTA협상은 원천 무효다!!

- UR 낙농협상 실패의 답습과 최소한의 국내보호장치마저 외면하다니-

희망이 절벽이다. 한미 FTA 협상타결을 접한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건국 이래 사상최대의 농축산물 개방을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였다. 여기에 편향된 경제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대중언론들은 농업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는 애써 외면하고 경제효과 부풀리기에만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농업 피해액 축소에만 혈안이 되어 당초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계산법을 내 놓았다.

낙농품의 협상결과만 보더라도 정부는 분유를 현행관세로 유지했다고 자평하지만, 무관세로 TRQ 물량을 내줌으로써 앞 문은 걸어 잠그고 뒷 문은 열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UR 협상에서도 분유는 고관세로 유지해놓고, 소위 위장유제품인 혼합분유를 저관세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원유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을 가져왔었다. 이는 정부도 시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똑 같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명분만 챙겼을 뿐 실익은 모두 다 내준 꼴이다. 더군다나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에서는 미국 요구에 따라 TRQ 합의물량에 대한 국내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영무역 포기과 수입이익부과금(MARK UP) 예외,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등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국내보호장치마저도 외면한 처사이며, 결국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없어져 앞친데 뒤틀린 격이 되고 말았다.

하나를 알면 만(萬)을 아는 법이다. 협상타결이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협정문은 공개되지 않은 채 의혹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낙농시수와 식량주권수호를 위해 한미 FTA 무효화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에게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7. 5. 3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강력 촉구

**한** 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5월 18일(금) 농림부를 방문하여,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 타결 및 한EU FTA 추진에 대한 농가 입장전달과 함께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위원회 대표단은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추진으로 농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낙농산업 피해가 과소 평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TRQ물량 과다 및 관리방식의 미국측 요구 수용에 따라 낙농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동시에 향후 한EU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총체적인 위기 속에 한국낙농의 궁극적인 해법이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임을 농림부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면 하겠다'는 식의 정책의지 부재로 제도개편의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진흥회농가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기준원유량 조정 역시 이뤄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농가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낙농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함께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국 낙농인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이상길 축산국장은 한미 FTA 협상결

과, 분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했으나 TRQ 물량 설정에 따라 향후 한EU 등 FTA 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TRQ물량 과다로 인해 낙농가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 중인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는 낙농품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달하였다.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나 농가, 유업체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해주체별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낙농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대표단은 전국단위 제도개편은 정책의지가 중요하며 실질적인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가 필요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와함께 제도개편 과정에서 진흥회농가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기준원유량 조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전달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청년분과위원회 대표단으로는 김태섭 청년분과위원장을 비롯하여 심동섭 부위원장, 손정렬 부위원장, 이명환 감사, 이경훈 총무, 김상대 경남도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이상길 축산국장, 이성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